

재외동포청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실시 - 재외동포 청소년 등 1,200명 -

- 재외동포청은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안녕(Safe & Peace)”이라는 주제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1차(7.10.(월)~16.(일))와 2차(8.7.(월)~13.(일))로 나뉘어 1,200여명이 참여하여 천안, 안동, 제주 등에서 실시된다.
 - ※ 재외동포청 주최, 재외동포협력센터 주관, 한국YMCA전국연맹 총괄 운영
-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사회·문화·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고,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연수이다.
 -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의 개회식, △안동 하회탈 놀이, 전통 시장 방문, 수원 화성 견학 등 지역 탐방, △도시숲체험, 경복궁·한옥마을 견학 등 서울도심탐험, △K-POP 공연, 홈스테이 등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소통시간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1998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순례연수 사업’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모국연수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7.11(화) 개회식에 참석한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해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석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 연수 일정 및 인원 현황

- (1차) 7.10.(월)~16.(일), 장소: 천안, 안동, 군산, 제주, 인원: 588명(재외동포 345명, 국내체류 재외동포 163명, 서포터즈 70명)
- (2차) 8.7.(월)~13.(일), 장소: 시흥, 공주, 목포, 포항, 인원: 620명(재외동포 380명, 국내체류 재외동포 160명, 서포터즈 80명)

첨부 1.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주요 내용 1부
2. 사진 2부.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책임자	과장	정수현	032-585-7433
		담당자	행정사무관	박홍주	032-585-3259

[첨부 1]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2023 OKFriends HomeComing Teens Camp)

1. 연수 일시 및 장소

가. (1차) 7.10.(월)~16.(일), 장소: 천안, 안동, 군산, 제주

나. (2차) 8.7.(월)~13.(일), 장소: 시흥, 공주, 목포, 포항

2. 연수 참여 대상

가. 전체 인원: 1,208명

○ 1차 : 588명(재외동포 345명, 국내체류 재외동포 163명, 서포터즈 70명)

○ 2차 : 620명(재외동포 380명, 국내체류 재외동포 160명, 서포터즈 80명)

나. 자격 :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만14세~만18세)

3. 주요 일정 및 내용

일 자	프로그램	비고
1일차	만남과 기쁨(환영의 날)	
2일차	모국 이해와 어울림(또래와의 만남의 날)	개회식 : 독립기념관
3일차	한국의 전통과 삶(한국생활 체험의 날)	
4일차	문화예술과 소통(역사·문화 체험의 날)	
5일차	세계속의 한국(교류와 소통의 날)	
6일차	세계의 안녕(도시체험의 날)	서울 일대
7일차	헤어짐(환송의 날)	

[첨부 2] 개회식 사진

